

# 소박한 도심 예술장터, 올해도 문 엽니다

광주 서석초 앞 오늘 '동그랑 마켓'  
플리마켓협동조합 금요일 플리마켓  
청년 셀러들 다양한 상품 판매

유·스퀘어 '아름다운 예술시장'  
내일 올 첫 행사  
지역예술가-지역민 소통 한마당



유·스퀘어문화관 '아름다운 예술시장' 올 첫 행사가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2층 실내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유·스퀘어문화관 제공>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서석초교 앞에서 열린 '동그랑 마켓'에 방문한 시민들이 각종 체험행사(위)를 즐기며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플리마켓협동조합 제공>

‘소박한 예술장터, 올해도 문 엽니다.’

몇년 전부터 손으로 직접 만든 아기가진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아트 마켓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대인시장 등 대규모 마켓도 있지만 양림동, 동명동 등에서 열리는 소규모 마켓들도 많다.

잠시 휴지기를 가졌던 아트 마켓들이 서서히 기지를 깨고 있다. 마켓이 주로 야외에서 열리는 터라 아직은 다양한 시장이 열리는 않지만 재미있게 둘러보고, 제품도 구입할 수 있는 마켓에 들러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광주시 동구 서석초등학교 앞 차 없는 거리에서 오는 15일(낮 12시부터 오후 5시) ‘동그랑 마켓’이 열린다. 청년들로 구성된 플리마켓협동조합이 동구청과 공동 주최·주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하는 플리마켓이다.

플리마켓협동조합은 지난해 9월 예비마케팅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25일 지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플리마켓 ‘달반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동그랑 마켓’은 청년 셀러들이 판매하는 젊은 감각의 상품을 엿볼 수 있다.

매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주민 약 30명이 각자 손재주를 살려 만든 다양한 상품을 보는 재미가 있다. 팔찌, 귀걸이 등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각종 수공예 액세서리, 좋은 향기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줄 디퓨저, 쿠키나 초콜릿 등 직접 만든 건강 간식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종고의류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그밖에 지역 청년문화활동단체 ‘감섬’이 참여한 미술 전시회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유·스퀘어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오는 16일(오전 11시~오후 6시30분) 첫 행사를 시작한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유·스퀘어문화관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마련한 행사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형식을 넘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 매일 두 차례 열렸던 예술시장은 올해부터 매일 셋째주 토요일, 한차례로 바뀌 집중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1월과 2월은 날씨를 고려해 유·스퀘어문화관 실내(드롭탑과 버거킹 사이)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3월부터는 2층 유·테라스 야외 공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참여하는 팀은 모두 30여 팀이다. 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비누, 옷, 팔찌, 인테리어 소품과 예술품들을 판매하고, 소규모 공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술시장은 참가 수수료가 없는 대신, 지역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작가들이 자율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광주문화재단에 기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주최측은 매일 예술시장에 참가할 예술가들과 공연단체 등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문의 062-360-84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화순 도원명품마을위원회 인문학 콘서트 내일 무등산인문학카페

화순 도원명품마을위원회(위원장 송문재)가 16일 오후 2시 무등산인문학카페(화순 도원마을 방문자센터)에서 인문학 콘서트 ‘무릉도원’을 개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

는 ‘동심’을 주제로 악기 연주, 동요, 토크 콘서트 시낭송, 풍토 등 다양한 내용으로 펼쳐진다.

행사는 백필순, 조우상 씨의 드럼, 팬플루트 공연을 시작으로 정연심씨가 아코디언, 박정수씨가 색소폰 연주를 들려준다.

이어 신정애, 안나엘 등 도원마을 부녀회원들이 동요 메들리(반주 정산자)를 부르며 관객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

토크콘서트는 ‘나의 어린 시절’을 주제로 류수창, 정혜자씨가 진행한다. 또 광성숙 시인, 주옥선씨가 시낭송을 들려주며

정준찬씨의 지휘로 민요를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이 참여한 ‘송문재와 벗님들’이 ‘장차’의 글을 각색한 5분 분량 풍토를 준비했다. 그밖에 사행시, 나도 시인, 나도 가수, 나도 춤꾼, 퀴즈 등 각종 참여코너도 마련됐다. 문의 061-371-685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설중매화-눈 속에서 매화를 찾다

전남대치과병원 갤러리 내달 1일까지 위진수 개인전

옛 선비들은 동장군을 이겨내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설중매(雪中梅)를 매화 가운데서도 최고로 여겼다.

한국화 위진수 작가가 2월1일까지 전남대치과병원(원장 황인남) 아트스페이스갤러리에서 ‘설중매화(雪中梅)-눈 속에서 매화를 찾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본 매화 작품 11점을 선보인다. 먹으로 표현한 줄기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꽃망울이나 하얀 눈송이인 듯 흰 꽃잎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위씨가 화폭에 담은 매화는 눈보라가 쏟아지는 별관에서 추위를 의연하게 견뎌내고 있다. 다채로운 색상 또는 흑백의 조화로 매화가 가진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해준다. ‘도지청향(島之淸香)’은 바닷가에 핀 흰 매화꽃이 푸른 바닷물과 어울리며 봄 냄새를 물씬 풍긴다.

위씨는 호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소나무회와 광주청년작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전남대치과병원(원장 황인남) 아트스페이스갤러리는 매일 정기적으로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며 환자와 보호



‘도지청향’ 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문의 062-530-55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향, 광주·나주서 신년음악회

오늘 광주문예회관-브람스 교향곡 1번 등 연주  
19일 한전 한빛홀-플루티스트 최나경씨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광주와 나주에서 두 차례 신년음악회를 연다. 특히 나주 공연에서는 112년 전통의 비엔나 심포니에 한국인으로서의 첫 입단, 화제를 모았던 플루티스트 최나경씨가 협연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신년음악회는 로시니의 ‘도독까지’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전남대 교수로 재직중인 테너 윤병길씨와 지난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소프라노 이승희씨가 조두남 곡 ‘벚노래’,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김효근 곡 ‘눈’,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투나잇’ 등을 들려준다. 피날레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마련한 ‘빛가람신년음악회’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축하하는 자리다. 19일 오후 7시30분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빛홀.

로시니의 ‘도독까지’ 서곡을 비롯해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사라사테 ‘지고이네트라이젠’과 보네의 ‘카르멘 주제에 의한 환상곡’을 연주한다. 마지막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다. 선착순 무료 입장.

두 공연 모두 김영언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나경



윤병길

# 2016 광주일보 스키캠프

2016년 1월 27일(수) ~ 28일(목) 무주리조트

**모집대상** : 초·중·고등학생  
**참가비용** : 195,000원  
**제공사항** : 숙박(가족호텔 1박), 3식 제공, 스키렌탈, 스키강습 2회, 리프트이용권(후야권, 오전권), 스키장 보험 및 여행자 보험, 왕복차량

※ 일반부 : 별도 문의

1월 27일(수)	1월 28일(목)
08:00~08:20	06:30~
08:20~11:30	07:30~08:30
11:30~12:00	08:30~12:30
12:00~13:00	12:30~13:00
13:00~17:30	13:00~16:30
17:30~19:00	16:30~
19:00~21:00	
22:00~	

※ 스키복, 보드 렌탈시 본인부담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투어넷 여행사

**문의** | 062-225-2544, 062-220-0555

06:30~ 기상 / 세면

07:30~08:30 즐거운 아침식사

08:30~12:30 장비대여 / 스키강습(리프트포함)

12:30~13:00 장비반납 / 점심식사

13:00~16:30 인연 점점 후 출발

16:30~ 귀가